

정책자료 2018-07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상림 · 황남희 · 유재언 · 최인선 · 김세진

**【책임연구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18-0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이상림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발간사 <<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는 사회적·정책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실제적 위기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발전형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및 인구 감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운사이징의 위기는 도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상과 구성원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구변동의 파급이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책 대응 역시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와 신중년층의 가족 및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별히 첫 번째 시민 인식 모니터링 조사는 2018년 7월에 ‘저출산 고령화: 동상이몽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8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 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수와 관련된 인구 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 이슈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한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조사는 앞

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50~60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부양의 경험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 결과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 황남희 연구위원, 유재언 부연구위원, 최인선 연구원, 김세진 전문연구원이 각각의 영역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	4
<b>2.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b> .....	<b>7</b>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	9
제2절 정책 인지 .....	10
<b>3.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b> .....	<b>45</b>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	47
제2절 가족 부양 부담 및 인식 .....	48
제3절 가족문화 및 가치관 .....	65
<b>4. 결론</b> .....	<b>77</b>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79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제언 .....	82
<b>부록</b> .....	<b>85</b>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조사표 .....	85
부록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표 .....	90

## 표 목차

〈표 2-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10
〈표 2-2〉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요성 .....	11
〈표 2-3〉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 .....	13
〈표 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 .....	14
〈표 2-5〉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뒀야 한다’에 대한 의견 .....	16
〈표 2-6〉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	17
〈표 2-7〉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 대상 .....	19
〈표 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기에 적합한 정도 .....	21
〈표 2-9〉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	23
〈표 2-10〉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25
〈표 2-11〉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27
〈표 2-12〉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29
〈표 2-13〉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 .....	31
〈표 2-14〉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	33
〈표 2-15〉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	35
〈표 2-16〉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37
〈표 2-1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39
〈표 2-18〉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41
〈표 2-19〉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	43
〈표 3-1〉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48

〈표 3-2〉 학생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	50
〈표 3-3〉 쉼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	52
〈표 3-4〉 신켄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	54
〈표 3-5〉 생존 부모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	56
〈표 3-6〉 생존 부모 유무 및 비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	58
〈표 3-7〉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한 인식 .....	60
〈표 3-8〉 경제적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 .....	62
〈표 3-9〉 부모 노후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	64
〈표 3-10〉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	66
〈표 3-11〉 자녀 세대의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 .....	67
〈표 3-12〉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	69
〈표 3-13〉 졸혼에 대한 인식 .....	71
〈표 3-14〉 50~60대의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 .....	72
〈표 3-15〉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 .....	74
〈표 3-16〉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 등의 정도 .....	75





제 1 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 제1절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과거의 변동이 지속·누적되면서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시민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문제는 사람의 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이슈로 이해되기 쉽지만, 실상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자원 배분과 관련되면서 매우 정치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인구 현상은 매우 사회정치적인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정책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당연히 사회적 모색을 피하여야 하며,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첫 번째 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를, 두 번째 조사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층의 가족과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 제2절 연구 내용

###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 조사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 일정: 2018. 6. 25.~2018. 7. 6. 약 2주간 실시
-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
  - 한국리서치 패널을 활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5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당하여 최종 표본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실시

### ○ 조사 대상

- 19세~60세 이상 성인 인구 총 2000명
- 남자(49.5%), 여자(50.5%)
- 19~29세(17.4%), 30~39세(17.0%), 40~49세(20.2%), 50~59세(19.8%), 60세 이상(25.4%)
- 수도권/광역시(44.8%), 중소도시(47.5%), 농어촌(7.7%)
- 미혼(23.8%), 기혼(71.8%), 이혼/사별(4.5%)
- 유자녀(71.6%), 무자녀(28.4%)
- 자가(67.9%), 전세/월세(28.5%), 기타(3.7%)
- 주관적 계층 하/중하(43.5%), 중간(41.2%), 중상/상(15.3%)

### □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 조사 목적: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 관련 50~60대의 인식 파악

- 조사 일정: 2018. 11. 21.~2018. 11. 30. 10일간 실시
-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
  - 한국리서치 패널을 활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당하여 최종 표본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50~69세 인구 총 2022명
  - 남자(50%), 여자(50%)
  - 50~54세(29.4%), 55~59세(30.1%), 60~64세(24.0%), 65~69세(16.5%)
  - 대도시(44.2%), 중소도시(37.5%), 농어촌(18.3%)
  - 유배우자(89.6%), 무배우자(10.2%), 모름/무응답(0.2%)
  - 중학교 졸업 이하(22.5%), 고등학교 졸업(34.0%), 대학 졸업 이상(42.1%), 모름/무응답(1.4%)
  - 취업(69.7%), 미취업(30.0%), 모름/무응답(0.3%)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16.6%), 중하층(22.6%), 중간층(45.5%), 중상층(13.4%), 상층(2.0%)



제 2 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제2절 정책 인지





# 2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 시민 인식 모니터링

###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이번 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활용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5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년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25일~2018년 7월 6일로 약 2주간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49.5%와 50.5%이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25.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0~49세 20.2%, 50~59세 19.8%, 19~29세 17.4% 30~39세 17.0%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중소도시가 47.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수도권/광역시 44.8%, 농어촌 7.7% 순이었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71.8%가 기혼, 23.8%가 미혼, 이혼 또는 사별이 4.5%이다. 자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71.6%, 자녀가 없다는 응답자는 28.4%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응답자의 41.2%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28.7%, 하층 14.8%, 중상층 13.7%, 상층 1.6% 순으로 나타난다.

## 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2-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항목	비율(명)	항목	비율
전체	100.0(2,000)		
성별		자녀 유무	
남자	49.5	있음	71.6
여자	50.5	없음	28.4
연령		주택 점유 형태	
19~29세	17.4	자가	67.9
30~39세	17.0	전세	17.6
40~49세	20.2	월세	10.9
50~59세	19.8	기타	3.7
60세 이상	25.4	주관적 계층	
지역		하층	14.8
수도권/광역시	44.8	중하층	28.7
중소도시	47.5	중간층	41.2
농어촌	7.7	중상층	13.7
혼인 상태		상층	1.6
미혼	23.8		
기혼	71.8		
이혼/사별	4.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제2절 정책 인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동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2〉 참조).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이 87.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반대는 약 2%포인트 높고 ‘조금 그렇지 않다’는 약한 반대는 3%포인트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적었다. 동의하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93.2%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84.2%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나눠서 봤을 때 동의하는 비율은 기혼(85.4%)이 미혼(92.1%), 이혼·사별(92.2%)보다 7%포인트 정도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무자녀(91.5%)가 유자녀(8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6%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2-2〉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6.5	6.2	31.4	55.9	100.0	(2,000)
성별( $\chi^2=13.010^{**}$ )						
남자	7.7	4.6	31.2	56.6	100.0	( 990)
여자	5.4	7.8	31.6	55.2	100.0	(1,010)
연령( $\chi^2=50.828^{***}$ )						
19~29세	2.4	4.4	41.6	51.6	100.0	( 349)
30~39세	5.8	2.7	30.5	60.9	100.0	( 341)
40~49세	6.4	8.2	27.5	57.9	100.0	( 405)
50~59세	9.3	6.3	26.8	57.7	100.0	( 397)
60세 이상	7.8	8.0	31.7	52.5	100.0	( 508)
혼인 상태( $\chi^2=35.869^{***}$ )						
미혼	3.5	4.4	39.9	52.2	100.0	( 476)
기혼	7.5	7.1	29.1	56.3	100.0	(1,435)

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이혼/사별	6.7	1.0	23.1	69.1	100.0	( 89)
자녀 유무( $\chi^2=23.429^{***}$ )						
있음	7.7	6.7	28.9	56.7	100.0	(1,432)
없음	3.6	4.9	37.7	53.8	100.0	( 568)
소득계층( $\chi^2=8.850$ )						
하층	6.8	7.0	30.7	55.5	100.0	( 296)
중하층	6.1	6.0	34.0	53.9	100.0	( 575)
중간층	6.7	5.9	31.1	56.3	100.0	( 824)
중상층	7.2	6.7	26.4	59.7	100.0	( 273)
상층	0.0	5.5	41.6	52.9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개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표 2-3〉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저출  
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조금 그렇  
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3.7%로 대부분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  
답 비율 차이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도 구분  
하였다. 연령대별로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40대(87.9%), 30대(87.2%),  
50대(85.3%)의 중·장년층이 20대 이하(80.9%), 60대 이상(78.8%)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6.1	10.1	43.6	40.1	100.0	(2,000)
성별( $\chi^2=4.969$ )						
남자	6.7	8.9	43.1	41.3	100.0	( 990)
여자	5.5	11.4	44.2	38.9	100.0	(1,010)
연령( $\chi^2=38.807^{***}$ )						
19~29세	5.2	13.9	44.9	36.0	100.0	( 349)
30~39세	5.3	7.5	43.6	43.7	100.0	( 341)
40~49세	4.7	7.4	40.2	47.7	100.0	( 405)
50~59세	7.4	7.3	44.3	41.0	100.0	( 397)
60세 이상	7.4	13.8	45.0	33.9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0.461$ )						
미혼	5.6	12.8	43.7	37.9	100.0	( 476)
기혼	6.4	9.6	43.8	40.3	100.0	(1,435)
이혼/사별	4.4	4.8	40.8	50.0	100.0	( 89)
자녀 유무( $\chi^2=3.080$ )						
있음	6.4	9.5	43.7	40.4	100.0	(1,432)
없음	5.3	11.8	43.4	39.5	100.0	( 568)
소득계층( $\chi^2=17.648$ )						
하층	5.5	6.6	38.7	49.2	100.0	( 296)
중하층	5.8	10.4	44.6	39.2	100.0	( 575)
중간층	6.2	11.2	43.5	39.1	100.0	( 824)
중상층	7.6	10.3	45.8	36.3	100.0	( 273)
상층	2.9	8.7	56.5	31.8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전적으로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 안 함’, ‘전혀 동의 안 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표 2-4〉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전혀 동의 안 함 + 별로 동의 안 함)이 68.8%로 대다수였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컸다. 성별로는 남자(67.3%)가 여자(70.2%)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3%포인트 적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대 이하(90.1%)와 60대 이상(49.5%) 간의 차이가 40%포인트 정도로 매우 컸다. 혼인 상태별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은 86.9%로 매우 높았지만 기혼(64.8%), 이혼·사별(36.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라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에 차이가 컸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84.5%)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62.5%)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했을 때는 응답자 수가 32명에 불과한 상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났고 중상층(74.1%)과 하층(52.7%) 간의 차이가 21.4%포인트나 될 정도로 컸다.

〈표 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전체	33.6	35.2	21.7	9.5	100.0	(2,000)
성별( $\chi^2=9.074^*$ )						
남자	30.4	36.9	22.8	10.0	100.0	( 990)
여자	36.7	33.5	20.7	9.1	100.0	(1,010)
연령( $\chi^2=306.568^{***}$ )						
19~29세	59.6	30.5	8.4	1.5	100.0	( 349)
30~39세	45.7	33.1	17.8	3.3	100.0	( 341)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40~49세	30.2	44.1	19.4	6.4	100.0	( 405)
50~59세	23.8	36.6	27.6	12.0	100.0	( 397)
60세 이상	17.9	31.6	30.7	19.8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80.371***$ )						
미혼	53.7	33.2	10.6	2.5	100.0	( 476)
기혼	27.8	37.0	24.4	10.8	100.0	(1,435)
이혼/사별	19.2	17.2	37.2	26.3	100.0	( 89)
자녀 유무( $\chi^2=134.279***$ )						
있음	26.8	35.7	25.7	11.8	100.0	(1,432)
없음	50.7	33.8	11.7	3.8	100.0	( 568)
소득계층( $\chi^2=95.006***$ )						
하층	23.9	28.8	25.4	21.9	100.0	( 296)
중하층	32.2	36.2	24.3	7.3	100.0	( 575)
중간층	35.3	38.0	19.4	7.3	100.0	( 824)
중상층	42.1	32.0	20.1	5.9	100.0	( 273)
상층	30.8	29.6	15.7	23.9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앞선 질문과 유사하게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전적으로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 안 함’, ‘전혀 동의 안 함’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2-5>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4%로 동의한다는 의견 47.6%보다 조금 많았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20대 이하 73.4%, 60대 이상 32.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연령대일수록 높았다. 혼인 상태 별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에서 70.2%로 기혼 48.1%, 이혼·사별 27.2%보다 높았다.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67.1%)가 자녀

가 있는 응답자(46.6%)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6%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하면 중상층 61.8%, 중간층 54.3%, 중하층 49.9%, 하층 43.2%로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5〉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뒀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전체	18.0	34.4	35.3	12.3	100.0	(2,000)
성별( $\chi^2=4.083$ )						
남자	17.3	36.2	35.2	11.3	100.0	( 990)
여자	18.8	32.6	35.3	13.3	100.0	(1,010)
연령( $\chi^2=209.962^{***}$ )						
19~29세	34.3	39.1	23.5	3.0	100.0	( 349)
30~39세	24.7	35.0	30.9	9.4	100.0	( 341)
40~49세	13.5	41.7	35.0	9.8	100.0	( 405)
50~59세	13.8	36.1	36.4	13.8	100.0	( 397)
60세 이상	9.4	23.5	45.7	21.5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53.552^{***}$ )						
미혼	31.9	38.3	25.4	4.4	100.0	( 476)
기혼	13.9	34.2	38.4	13.6	100.0	(1,435)
이혼/사별	11.6	15.6	38.7	34.0	100.0	( 89)
자녀 유무( $\chi^2=106.585^{***}$ )						
있음	13.2	33.4	38.8	14.6	100.0	(1,432)
없음	30.2	36.9	26.4	6.5	100.0	( 568)
소득계층( $\chi^2=39.767^{***}$ )						
하층	14.6	28.6	36.4	20.4	100.0	( 296)
중하층	15.5	34.4	38.9	11.2	100.0	( 575)
중간층	19.6	34.7	35.3	10.4	100.0	( 824)
중상층	22.7	39.1	27.2	11.0	100.0	( 273)
상층	16.1	38.9	28.4	16.6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이번에는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어떠한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다(〈표 2-6〉 참조). 응답은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5%가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15%로 매우 적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연령,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50대, 특히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응답자가 32명으로 매우 적었던 상층을 제외했을 때 전반적으로 계층이 높을수록 혼인 지원보다 출산·양육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6〉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단위: %, 명)

구분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계	(명)
전체	15.0	85.0	100.0	(2,000)
성별( $\chi^2=0.475$ )				
남자	15.5	84.5	100.0	( 990)
여자	14.4	85.6	100.0	(1,010)
연령( $\chi^2=28.513^{***}$ )				
19~29세	14.6	85.4	100.0	( 349)
30~39세	9.2	90.8	100.0	( 341)

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구분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계	(명)
40~49세	11.0	89.0	100.0	( 405)
50~59세	16.4	83.6	100.0	( 397)
60세 이상	21.1	78.9	100.0	( 508)
혼인 상태( $\chi^2=4.469$ )				
미혼	17.1	82.9	100.0	( 476)
기혼	14.0	86.0	100.0	(1,435)
이혼/사별	19.7	80.3	100.0	( 89)
자녀 유무( $\chi^2=0.444$ )				
있음	14.6	85.4	100.0	(1,432)
없음	15.8	84.2	100.0	( 568)
소득계층( $\chi^2=16.952^{**}$ )				
하층	20.4	79.6	100.0	( 296)
중하층	14.4	85.6	100.0	( 575)
중간층	13.9	86.1	100.0	( 824)
중상층	11.5	88.5	100.0	( 273)
상층	31.9	68.1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다(〈표 2-7〉 참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아내 7.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 해서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보면 남편은 아내보다 기업,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4%포인트씩 높았다. 반면 남편은 아내보다 아내, 사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낮았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연령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저연령일수록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가 미혼이면 기혼, 이혼·사별보다 기업, 지역사회,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혼인 상태가 이혼·사별이면 미혼, 기혼보다 남편,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므로 조사되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남편, 아내의 개인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차이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7〉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 대상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계	(명)
전체	17.5	7.4	15.7	13.6	45.8	100.0	(2,000)
성별( $\chi^2=24.271^{***}$ )							
남자	17.2	4.8	17.6	12.6	47.7	100.0	( 990)
여자	17.8	9.8	13.8	14.6	43.9	100.0	(1,010)
연령( $\chi^2=137.001^{***}$ )							
19~29세	9.0	4.2	19.1	20.0	47.7	100.0	( 349)
30~39세	11.1	3.9	22.6	14.4	48.0	100.0	( 341)
40~49세	14.3	6.4	19.4	11.9	48.0	100.0	( 405)
50~59세	23.8	7.2	12.2	11.6	45.2	100.0	( 397)
60세 이상	25.4	12.7	8.5	11.6	41.8	100.0	( 508)
혼인 상태( $\chi^2=55.839^{***}$ )							
미혼	10.6	3.7	21.1	17.3	47.3	100.0	( 476)
기혼	19.3	8.3	14.6	12.3	45.6	100.0	(1,435)
이혼/사별	26.5	11.9	5.1	15.3	41.2	100.0	( 89)
자녀 유무( $\chi^2=59.383^{***}$ )							
있음	20.3	8.8	13.8	11.8	45.4	100.0	(1,432)
없음	10.7	3.8	20.6	18.0	46.9	100.0	( 568)

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구분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계	(명)
소득계층( $\chi^2=16.614$ )							
하층	20.3	6.1	12.4	14.2	47.0	100.0	( 296)
중하층	15.7	8.1	15.1	13.4	47.7	100.0	( 575)
중간층	17.8	7.9	16.3	14.2	43.7	100.0	( 824)
중상층	16.5	5.5	18.8	10.7	48.4	100.0	( 273)
상층	26.1	6.9	15.1	19.6	32.4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고 응답은 ‘매우 적절’, ‘조금 적절’, ‘조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표 2-8〉 참조). 조사 결과 적절하다(조금 적절 + 매우 적절)는 응답이 60.4%로 부적절하다(39.6%)는 응답보다 21%포인트 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여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40대(69.6%)에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30대, 50대에서는 60~61%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60대 이상에서는 그보다 낮은 52%였다. 혼인 상태별로 세분화했을 때 기혼(15.8%), 이혼·사별(16.3%)이 미혼(9.2%)에 비해 매우 적절하다는 강한 긍정 비율이 약 6%포인트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강한 긍정 비율에 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동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하면 하층(47.0%)에서 중상층(66.5%)까지 계층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별히 지역별로는 군 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3.4%,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2.7%로 부정적 응답이 66.1%

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5.7%에 머물렀다.

〈표 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기에 적합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적절	조금 부적절	조금 적절	매우 적절	계	(명)
전체	11.6	28.0	46.1	14.2	100.0	(2,000)
성별( $\chi^2=11.734^{**}$ )						
남자	13.6	28.1	46.1	12.2	100.0	( 990)
여자	9.7	27.9	46.2	16.2	100.0	(1,010)
연령( $\chi^2=51.305^{***}$ )						
19~29세	10.0	29.2	50.8	10.1	100.0	( 349)
30~39세	11.0	27.5	50.4	11.1	100.0	( 341)
40~49세	8.8	21.6	53.2	16.4	100.0	( 405)
50~59세	12.5	27.5	40.3	19.7	100.0	( 397)
60세 이상	14.7	33.0	39.1	13.2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4.155^*$ )						
미혼	10.9	30.0	49.9	9.2	100.0	( 476)
기혼	11.9	27.4	45.0	15.8	100.0	(1,435)
이혼/사별	11.3	27.3	45.1	16.3	100.0	( 89)
자녀 유무( $\chi^2=10.479^*$ )						
있음	11.8	27.7	44.8	15.7	100.0	(1,432)
없음	11.2	28.8	49.6	10.4	100.0	( 568)
소득계층( $\chi^2=53.165^{***}$ )						
하층	18.0	34.9	33.8	13.2	100.0	( 296)
중하층	10.9	31.0	46.9	11.2	100.0	( 575)
중간층	10.0	24.8	49.7	15.5	100.0	( 824)
중상층	9.5	24.0	48.8	17.7	100.0	( 273)
상층	26.6	27.0	31.9	14.4	100.0	( 32)
거주지역( $\chi^2=58.587^{***}$ )						
수도권 광역시	11.0	28.7	46.8	13.4	100.0	( 896)
중소도시	10.3	24.9	48.4	16.4	100.0	( 950)
군지역	23.4	42.7	28.2	5.7	100.0	( 154)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도 조사를 하였고, 선택지는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개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표 2-9〉 참조).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더하여 동의한다는 비율이 80.1%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를 더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9.9%)보다 4배가 많았다.

지방인구 감소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 79~81%가 동의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강한 동의 비율이 4%포인트 높았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그렇다’고 하는 약한 동의 비율이 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75.9%, 30~39세 75.9%, 40~49세 79.6%, 50~59세 83.8%, 60세 이상 83.4%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동의한다(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점차 증가하였다. 혼인 상태로 나눠 보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이혼·사별(89.4%), 기혼(81.4%), 미혼(74.6%) 순으로 높았다. 자녀 유무로 구분했을 때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81.5%)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76.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5%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층, 중하층, 중간층은 81~82% 정도로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상층(71.0%)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그보다 10%포인트 적었다.

〈표 2-9〉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7.2	12.6	41.8	38.3	100.0	(2,000)
성별( $\chi^2=12.606^{**}$ )						
남자	8.7	12.3	38.6	40.4	100.0	( 990)
여자	5.8	13.0	44.9	36.3	100.0	(1,010)
연령( $\chi^2=72.022^{***}$ )						
19~29세	6.9	17.2	54.3	21.6	100.0	( 349)
30~39세	8.4	15.7	41.0	34.9	100.0	( 341)
40~49세	9.3	11.0	38.0	41.6	100.0	( 405)
50~59세	6.9	9.3	38.6	45.2	100.0	( 397)
60세 이상	5.3	11.3	39.2	44.1	100.0	( 508)
혼인 상태( $\chi^2=39.233^{***}$ )						
미혼	7.8	17.6	47.2	27.4	100.0	( 476)
기혼	7.3	11.3	39.7	41.6	100.0	(1,435)
이혼/사별	3.0	7.6	45.7	43.7	100.0	( 89)
자녀 유무( $\chi^2=28.812^{***}$ )						
있음	7.1	11.4	39.6	41.9	100.0	(1,432)
없음	7.7	15.8	47.2	29.3	100.0	( 568)
소득계층( $\chi^2=36.519^{***}$ )						
하층	7.8	10.2	38.4	43.7	100.0	( 296)
중하층	5.2	13.3	45.1	36.3	100.0	( 575)
중간층	6.3	12.1	43.7	37.8	100.0	( 824)
중상층	13.8	15.1	32.3	38.8	100.0	( 273)
상층	6.0	15.3	43.4	35.3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다. 응답은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0〉 참조).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8%였고 불행하다(매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는 의견이 52%로 근소하게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에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높았고 30~50대까지는 43~47%로 중간 수준이었는데 20대 이하에서는 37%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특히 낮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사별이 58.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혼 51.9%였으며 미혼이 34.5%로 매우 낮았다. 자녀 유무로 나누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절반 이상(53.2%)이 행복하다는 데 동의했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34.9%만 행복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18%포인트의 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성별, 소득계층별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13.9	38.1	40.2	7.9	100.0	(2,000)
성별( $\chi^2=6.450$ )						
남자	15.4	38.7	37.7	8.2	100.0	( 990)
여자	12.5	37.4	42.6	7.5	100.0	(1,010)
연령( $\chi^2=144.433^{***}$ )						
19~29세	15.0	47.7	33.1	4.2	100.0	( 349)
30~39세	16.0	40.0	40.9	3.1	100.0	( 341)
40~49세	17.2	39.6	39.9	3.3	100.0	( 405)
50~59세	16.0	37.6	40.0	6.4	100.0	( 397)
60세 이상	7.6	29.3	44.8	18.3	100.0	( 508)
혼인 상태( $\chi^2=52.504^{***}$ )						
미혼	18.3	47.2	30.1	4.4	100.0	( 476)
기혼	12.8	35.3	43.3	8.6	100.0	(1,435)
이혼/사별	8.8	33.0	43.5	14.6	100.0	( 89)
자녀 유무( $\chi^2=57.262^{***}$ )						
있음	12.3	34.5	44.0	9.3	100.0	(1,432)
없음	18.1	47.0	30.5	4.4	100.0	( 568)
소득계층( $\chi^2=18.833$ )						
하층	16.4	35.2	37.1	11.2	100.0	( 296)
중하층	15.2	40.0	38.0	6.7	100.0	( 575)
중간층	11.2	37.7	43.3	7.7	100.0	( 824)
중상층	16.2	39.0	38.0	6.8	100.0	( 273)
상층	16.6	29.7	44.0	9.7	100.0	( 3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아이들에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고, 응답도 동일하게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2-11〉 참조).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는 생각이 26.6%에 불과해 불행하다(매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는 의견의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응답한 결과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해서도 살펴 보겠다. 행복하다는 의견이 성별로는 남자(28.7%)가 여자(24.5%)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연령대별로는 20~50대까지는 22~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60대 이상에서만 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이혼·사별(32.2%), 기혼(27.7%), 미혼(22.1%) 순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녀 유무로 나누었을 때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28.2%)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22.4%)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다는 인식을 약 6%포인트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사례 수가 32명으로 매우 적었던 상층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층(29.6%), 하층(27.3%), 중상층(25.1%), 중하층(22.0%) 순으로 높았다.

〈표 2-11〉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25.2	48.2	23.5	3.1	100.0	(2,000)
성별( $\chi^2=10.732^*$ )						
남자	26.1	45.3	24.6	4.0	100.0	( 990)
여자	24.4	51.0	22.3	2.2	100.0	(1,010)
연령( $\chi^2=45.802^{***}$ )						
19~29세	27.7	49.2	22.3	0.9	100.0	( 349)
30~39세	29.7	48.1	21.0	1.1	100.0	( 341)
40~49세	27.1	48.7	22.0	2.3	100.0	( 405)
50~59세	24.3	50.7	21.0	4.0	100.0	( 397)
60세 이상	19.9	45.1	29.1	5.9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9.815^{**}$ )						
미혼	29.1	48.8	20.2	1.9	100.0	( 476)
기혼	24.3	47.9	24.5	3.2	100.0	(1,435)
이혼/사별	18.9	48.9	23.5	8.7	100.0	( 89)
자녀 유무( $\chi^2=7.986^*$ )						
있음	24.3	47.5	24.8	3.4	100.0	(1,432)
없음	27.6	50.0	20.1	2.4	100.0	( 568)
소득 계층( $\chi^2=29.245^{**}$ )						
하층	25.8	46.9	22.6	4.6	100.0	( 296)
중하층	29.6	48.4	20.1	1.8	100.0	( 575)
중간층	21.9	48.5	26.6	3.0	100.0	( 824)
중상층	25.4	49.5	21.9	3.3	100.0	( 273)
상층	25.3	37.3	25.0	12.4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아이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질문을 하였고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표 2-12〉 참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9%로 불행하다(매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59.1%)보다 19%포인트 정도 적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했을 때도 응답 비율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나누었을 때 여자(47.1%)가 남자(34.5%)보다 우리나라의 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포인트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2.4%, 60대 이상 54.4%로 고연령자일수록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기혼(43.9%), 이혼·사별(44.7%)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미혼(31.0%)은 그보다 13%포인트 정도 덜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45.2%)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30.1%)에 비해 15%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12〉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15.3	43.9	34.1	6.7	100.0	(2,000)
성별( $\chi^2=38.526^{***}$ )						
남자	18.4	47.2	29.4	5.1	100.0	( 990)
여자	12.2	40.6	38.7	8.4	100.0	(1,010)
연령( $\chi^2=107.243^{***}$ )						
19~29세	15.9	51.7	29.7	2.7	100.0	( 349)
30~39세	17.6	47.9	31.8	2.8	100.0	( 341)
40~49세	18.3	47.7	30.3	3.7	100.0	( 405)
50~59세	14.7	41.9	36.7	6.6	100.0	( 397)
60세 이상	11.3	34.2	39.7	14.7	100.0	( 508)
혼인 상태( $\chi^2=30.846^{***}$ )						
미혼	17.7	51.2	27.8	3.2	100.0	( 476)
기혼	14.5	41.6	36.3	7.6	100.0	(1,435)
이혼/사별	13.5	41.7	33.2	11.5	100.0	( 89)
자녀 유무( $\chi^2=43.700^{***}$ )						
있음	14.6	40.2	37.0	8.2	100.0	(1,432)
없음	16.9	53.0	26.9	3.2	100.0	( 568)
소득계층( $\chi^2=18.006$ )						
하층	19.2	41.5	29.9	9.4	100.0	( 296)
중하층	15.8	46.4	33.2	4.6	100.0	( 575)
중간층	13.4	43.3	36.3	7.1	100.0	( 824)
중상층	15.1	43.9	34.2	6.9	100.0	( 273)
상층	19.5	36.8	34.0	9.7	100.0	( 3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응답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소폭 상승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소폭 하락해야 한다’, ‘대폭 하락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3〉 참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하락해야 한다(대폭 하락해야 한다 + 소폭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로 대다수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지만, 상승해야 한다(대폭 상승해야 한다 + 소폭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은 7.7%로 매우 드물었다.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 계층으로 세분화해서도 살펴보겠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2%포인트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이하에서 77.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50대(72.3%), 40대(70.9%), 30대(69.2%), 60대 이상(61.7%) 순이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혼(76.4%), 기혼(68.2%), 이혼·사별(59.2%) 순으로 높았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75.1%)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67.7%)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포인트 높았다. 마지막으로 하층(75%)에서 상층(57.8%)까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대폭 하락해야 한다	소폭 하락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소폭 상승해야 한다	대폭 상승해야 한다	계	(명)
전체	33.1	36.7	22.5	6.1	1.6	100.0	(2,000)
성별( $\chi^2=10.455^*$ )							
남자	36.1	34.5	21.3	6.7	1.4	100.0	( 990)
여자	30.1	38.9	23.7	5.6	1.7	100.0	(1,010)
연령( $\chi^2=45.198^{***}$ )							
19~29세	34.0	43.9	16.0	5.4	.8	100.0	( 349)
30~39세	32.4	36.8	24.1	4.9	1.8	100.0	( 341)
40~49세	34.5	36.4	21.8	6.6	0.8	100.0	( 405)
50~59세	35.2	37.1	19.5	7.4	0.7	100.0	( 397)
60세 이상	30.1	31.6	28.8	6.2	3.3	100.0	( 508)
혼인 상태( $\chi^2=28.075^{***}$ )							
미혼	34.7	41.7	17.5	5.5	.5	100.0	( 476)
기혼	32.8	35.4	23.6	6.4	1.7	100.0	(1,435)
이혼/사별	28.4	30.9	30.9	4.6	5.2	100.0	( 89)
자녀 유무( $\chi^2=13.286^*$ )							
있음	32.6	35.1	24.1	6.3	1.9	100.0	(1,432)
없음	34.4	40.7	18.4	5.8	0.7	100.0	( 568)
소득계층( $\chi^2=39.765^{**}$ )							
하층	41.8	33.2	18.4	3.6	3.0	100.0	( 296)
중하층	37.5	36.0	20.4	5.2	0.9	100.0	( 575)
중간층	29.0	38.5	24.0	7.0	1.5	100.0	( 824)
중상층	27.5	37.1	25.7	8.6	1.1	100.0	( 273)
상층	25.9	31.9	31.7	6.2	4.2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고 응답은 ‘많이 증가해야 한다’, ‘조금 증가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조금 감소해야 한다’, ‘많이 감소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2-14〉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해야 한다(많이 증가해야 한다 + 조금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5.8%로 다수였고 23.6%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소해야 한다(많이 감소해야 한다 + 조금 감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6%로 소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자(69.5%)가 남자(62.1%)보다 7%포인트 많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여자(20.8%)가 남자(26.5%)보다 적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51.9%, 60대 이상 75.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했다. 혼인 상태별 차이도 컸다.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이혼·사별이 75.2%로 가장 높았고 기혼은 그보다 적은 69.3%였으며, 미혼이 53.7%로 가장 적었다. 자녀 유무로 구분했을 때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69.9%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그보다 15%포인트가 적은 55.8%만 인구 증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4〉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많이 감소해야 한다	조금 감소해야 한다	유지되어 야 한다	조금 증가해야 한다	많이 증가해야 한다	계	(명)
전체	3.3	7.3	23.6	32.0	33.8	100.0	(2,000)
성별( $\chi^2=12.816^*$ )							
남자	3.4	8.1	26.5	29.8	32.3	100.0	( 990 )
여자	3.2	6.6	20.8	34.2	35.3	100.0	(1,010)
연령( $\chi^2=130.542^{***}$ )							
19~29세	6.5	13.6	27.9	35.5	16.4	100.0	( 349 )
30~39세	3.5	8.0	24.7	38.7	25.1	100.0	( 341 )
40~49세	2.7	5.7	25.8	29.4	36.2	100.0	( 405 )
50~59세	3.0	7.3	22.3	28.7	38.7	100.0	( 397 )
60세 이상	1.5	3.7	19.1	29.8	45.9	100.0	( 508 )
혼인 상태( $\chi^2=80.934^{***}$ )							
미혼	6.0	12.6	27.8	34.0	19.7	100.0	( 476 )
기혼	2.4	5.8	22.6	31.1	38.2	100.0	(1,435)
이혼/사별	3.0	3.9	17.8	36.8	38.4	100.0	( 89 )
자녀 유무( $\chi^2=73.607^{***}$ )							
있음	2.3	5.6	22.3	31.2	38.6	100.0	(1,432)
없음	5.7	11.7	26.9	34.0	21.7	100.0	( 568 )
소득계층( $\chi^2=22.916$ )							
하층	2.1	5.6	22.2	31.3	38.9	100.0	( 296 )
중하층	3.6	6.4	22.7	34.9	32.5	100.0	( 575 )
중간층	3.0	7.4	24.4	31.8	33.5	100.0	( 824 )
중상층	5.1	11.0	23.9	29.3	30.8	100.0	( 273 )
상층	0.0	6.2	30.0	17.4	46.4	100.0	( 32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도움이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5〉 참조).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이 됐다 + 조금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6.4%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전혀 도움이 안 됐다 +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보다 적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인식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자(50.7%)가 남자(42.0%)보다 도움이 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약 9%포인트 더 많았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39.7%, 60대 이상 57.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혼인 상태별로 구분했을 때 이혼·사별(60.3%), 기혼(48.1%), 미혼(38.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인 49.0%인 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그보다 9%포인트가 낮은 40.0%만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2-15〉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매우 도움이 됐다	계	(명)
전체	15.2	38.4	42.5	3.9	100.0	(2,000)
성별( $\chi^2=22.311^{***}$ )						
남자	16.9	41.1	39.6	2.4	100.0	( 990)
여자	13.6	35.7	45.4	5.3	100.0	(1,010)
연령( $\chi^2=60.227^{***}$ )						
19~29세	16.2	44.1	38.6	1.1	100.0	( 349)
30~39세	18.2	38.8	40.0	3.0	100.0	( 341)
40~49세	18.9	38.5	39.5	3.1	100.0	( 405)
50~59세	16.5	38.1	41.7	3.6	100.0	( 397)
60세 이상	8.5	34.3	50.0	7.2	100.0	( 508)
혼인 상태( $\chi^2=27.033^{***}$ )						
미혼	16.5	44.9	37.2	1.4	100.0	( 476)
기혼	15.2	36.7	43.6	4.6	100.0	(1,435)
이혼/사별	8.3	31.3	54.3	6.0	100.0	(  89)
자녀 유무( $\chi^2=20.620^{***}$ )						
있음	14.8	36.3	44.2	4.8	100.0	(1,432)
없음	16.3	43.7	38.3	1.6	100.0	( 568)
소득계층( $\chi^2=17.214$ )						
하층	14.6	35.9	43.8	5.7	100.0	( 296)
중하층	16.1	40.2	40.5	3.2	100.0	( 575)
중간층	14.0	36.2	45.7	4.1	100.0	( 824)
중상층	18.2	42.4	36.5	2.9	100.0	( 273)
상층	10.4	49.4	37.2	2.9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와 별도로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하였다.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6〉 참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이 됐다 + 조금 도움이 됐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1.2%였고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전혀 도움이 안 됐다 +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비율은 28.8%로 적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한 결과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하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여자(76.8%)가 남자(6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도움이 됐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59.1%, 60대 이상 82.0%로 고연령일수록 높아졌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혼·사별, 기혼은 75%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미혼은 그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60.4%가 도움이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75.2%)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60.9%)에 비해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4%포인트 정도 높았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응답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6〉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매우 도움이 됐다	계	(명)
전체	5.5	23.3	56.3	14.8	100.0	(2,000)
성별( $\chi^2=63.102^{***}$ )						
남자	7.8	26.8	55.7	9.7	100.0	( 990)
여자	3.3	19.9	56.9	19.9	100.0	(1,010)
연령( $\chi^2=122.980^{***}$ )						
19~29세	7.6	33.3	53.4	5.7	100.0	( 349)
30~39세	8.0	29.5	52.0	10.5	100.0	( 341)
40~49세	5.9	24.4	59.1	10.7	100.0	( 405)
50~59세	3.9	19.4	59.1	17.6	100.0	( 397)
60세 이상	3.4	14.5	56.9	25.1	100.0	( 508)
혼인 상태( $\chi^2=50.943^{***}$ )						
미혼	7.3	32.3	53.0	7.4	100.0	( 476)
기혼	5.1	20.5	57.2	17.3	100.0	(1,435)
이혼/사별	3.3	21.3	59.9	15.5	100.0	( 89)
자녀 유무( $\chi^2=61.217^{***}$ )						
있음	5.1	19.7	57.5	17.8	100.0	(1,432)
없음	6.6	32.5	53.5	7.4	100.0	( 568)
소득계층( $\chi^2=18.463$ )						
하층	7.0	23.3	52.4	17.3	100.0	( 296)
중하층	4.2	25.3	57.9	12.6	100.0	( 575)
중간층	5.6	21.6	57.6	15.2	100.0	( 824)
중상층	5.6	22.8	55.0	16.5	100.0	( 273)
상층	12.8	36.0	43.9	7.2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질문을 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조금 불충분’, ‘매우 불충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표 2-17〉 참조). 전체 응답자의 인식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충분(매우 불충분 + 조금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76.1%로, 전반적으로 충분(매우 충분 + 조금 충분)했다는 의견(23.9%)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결과도 보겠다. 전반적으로 불충분했다는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83.3%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70.4%를 기록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이 불충분했다고 인식하는 비율(81.5%)이 매우 높았고 이어서 기혼 75.0%, 이혼·사별 65.6% 순이었다. 자녀 유무로 구분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82.3%)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73.7%)보다 불충분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8%포인트 정도 높았다.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했을 때 상층(82.4%), 중상층(80.7%), 중하층(79.0%), 중간층(73.7%), 하층(72.3%) 순으로 불충분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충분	조금 불충분	조금 충분	매우 충분	계	(명)
전체	30.1	46.0	21.2	2.6	100.0	(2,000)
성별( $\chi^2=4.728$ )						
남자	32.2	45.3	20.0	2.5	100.0	( 990)
여자	28.0	46.8	22.5	2.8	100.0	(1,010)
연령( $\chi^2=57.184^{***}$ )						
19~29세	28.2	55.1	14.5	2.2	100.0	( 349)
30~39세	40.2	40.7	18.4	0.8	100.0	( 341)
40~49세	32.8	43.9	21.8	1.5	100.0	( 405)
50~59세	29.6	43.0	23.4	4.1	100.0	( 397)
60세 이상	23.0	47.4	25.6	4.0	100.0	( 508)
혼인 상태( $\chi^2=25.836^{***}$ )						
미혼	29.6	52.0	16.7	1.8	100.0	( 476)
기혼	30.9	44.1	22.4	2.6	100.0	(1,435)
이혼/사별	20.2	45.4	27.0	7.4	100.0	( 89)
자녀 유무( $\chi^2=18.294^{***}$ )						
있음	29.7	43.9	23.3	3.0	100.0	(1,432)
없음	31.0	51.3	16.0	1.7	100.0	( 568)
소득계층( $\chi^2=23.703^*$ )						
하층	31.7	40.6	23.8	3.9	100.0	( 296)
중하층	30.1	48.9	19.2	1.7	100.0	( 575)
중간층	27.2	46.5	23.5	2.9	100.0	( 824)
중상층	37.2	43.5	17.2	2.1	100.0	( 273)
상층	29.8	52.6	11.3	6.2	100.0	( 3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별개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은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조금 불충분’, ‘매우 불충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8〉 참조).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불충분(매우 불충분 + 조금 불충분)했다는 인식이 55.3%로 충분(매우 충분 + 조금 충분)했다는 인식 44.7%보다 다수였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성별로는 남자(61.3%)가 여자(49.4%)보다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12%포인트 높았다. 불충분했다는 인식 순위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5.8%)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이하(63.0%), 40대(60.8%), 50대(51.9%), 60대 이상(41.2%) 순이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혼(63.4%), 기혼(53.1%), 이혼·사별(48.2%) 순으로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자녀가 없는 응답자(65.2%)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51.4%)보다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포인트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충분했다는 생각은 모든 계층에서 50%대였는데,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하층과 상층에서 특히 ‘매우 불충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다.



〈표 2-18〉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충분	조금 불충분	조금 충분	매우 충분	계	(명)
전체	13.2	42.1	36.4	8.2	100.0	(2,000)
성별( $\chi^2=31.568^{***}$ )						
남자	15.5	45.9	32.3	6.3	100.0	( 990)
여자	11.1	38.3	40.5	10.1	100.0	(1,010)
연령( $\chi^2=81.203^{***}$ )						
19~29세	14.8	48.2	32.3	4.7	100.0	( 349)
30~39세	15.9	49.9	28.6	5.6	100.0	( 341)
40~49세	14.5	46.3	33.5	5.7	100.0	( 405)
50~59세	13.5	38.4	38.2	9.9	100.0	( 397)
60세 이상	9.2	32.1	45.6	13.2	100.0	( 508)
혼인 상태( $\chi^2=23.165^{**}$ )						
미혼	15.5	47.9	32.0	4.6	100.0	( 476)
기혼	12.7	40.3	37.4	9.5	100.0	(1,435)
이혼/사별	9.5	38.7	44.2	7.6	100.0	( 89)
자녀 유무( $\chi^2=34.682^{***}$ )						
있음	12.1	39.3	39.0	9.6	100.0	(1,432)
없음	16.2	49.0	30.0	4.8	100.0	( 568)
소득계층( $\chi^2=26.633^{**}$ )						
하층	20.2	37.5	32.9	9.4	100.0	( 296)
중하층	12.4	44.4	36.7	6.5	100.0	( 575)
중간층	11.5	41.7	37.9	8.9	100.0	( 824)
중상층	11.7	44.1	34.6	9.6	100.0	( 273)
상층	23.2	34.5	42.3	0.0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고 응답은 ‘완전 해결할 것’,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9〉 참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75.8%로 대부분이었고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15.2%로 ‘완전 해결할 것’(9.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부의 노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78.0%)가 남자(73.5%)보다 조금 높은 반면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또는 ‘완전 해결할 것’이라는 극단적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2~3%포인트씩 낮았다. 그 밖의 연령,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 할 것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완전 해결할 것	계	(명)
전체	15.2	75.8	9.0	100.0	(2,000)
성별( $\chi^2=6.278^*$ )					
남자	16.2	73.5	10.3	100.0	( 990)
여자	14.2	78.0	7.7	100.0	(1,010)
연령( $\chi^2=7.719$ )					
19~29세	13.3	76.4	10.3	100.0	( 349)
30~39세	15.0	74.9	10.0	100.0	( 341)
40~49세	14.3	77.6	8.1	100.0	( 405)
50~59세	15.8	77.7	6.5	100.0	( 397)
60세 이상	16.9	73.0	10.2	100.0	( 508)
혼인 상태( $\chi^2=1.603$ )					
미혼	14.1	76.7	9.2	100.0	( 476)
기혼	15.3	75.7	9.1	100.0	(1,435)
이혼/사별	19.6	72.9	7.5	100.0	( 89)
자녀 유무( $\chi^2=2.275$ )					
있음	15.9	75.4	8.7	100.0	(1,432)
없음	13.4	76.8	9.8	100.0	( 568)
소득계층( $\chi^2=14.331$ )					
하층	18.6	72.0	9.4	100.0	( 296)
중하층	15.3	77.5	7.2	100.0	( 575)
중간층	14.5	76.7	8.8	100.0	( 824)
중상층	12.6	74.0	13.4	100.0	( 273)
상층	22.7	71.1	6.2	100.0	( 32)

주: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 3 장

##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제2절 가족 부양 부담 및 인식

제3절 가족문화 및 가치관



# 3

##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이번 장에서는 50~60대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50~69세 인구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활용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년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2018년 11월 30일로 총 10일이 소요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총 2022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이다. 연령은 55~59세가 30.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50~54세 29.4%, 60~64세 24.0%, 65~69세 16.5%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대도시가 4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소도시 37.5%, 농어촌 18.3%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89.8%가 유배우자, 10.2%가 무배우자이다.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4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34.5%, 중학교 졸업 이하 22.8% 순이었다. 취업 상태는 취업이 69.9%로 미취업 30.1%보다 더 많다.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응답자의 45.5%가 중간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22.6%, 하층 16.6%, 중상층 13.4%, 상층

2.0% 순으로 나타난다.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 4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 36.4%, 건강하지 않은 편 16.8%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비율(명)		비율
전체	100.0(2,022)		
성별		취업 상태1)	
남자	50.0	취업	69.9
여자	50.0	미취업	30.1
연령		소득계층	
50~54세	29.4	하층	16.6
55~59세	30.1	중하층	22.6
60~64세	24.0	중간층	45.5
65~69세	16.5	중상층	13.4
지역		상층	2.0
대도시	44.2	건강 상태	
중소도시	37.5	건강하지 않은 편	16.8
농어촌	18.3	보통	36.4
배우자 유무1)		건강한 편	46.9
유배우자	89.8		
무배우자	10.2		
교육 수준1)			
중학교 졸업 이하	22.8		
고등학교 졸업	34.5		
대학 졸업 이상	42.7		

주: 1) 배우자 유무 모름/무응답 4명, 교육 수준 모름/무응답 28명, 취업 상태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제2절 가족 부양 부담 및 인식

신중년(만 50~69세)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샌드위치세대로서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등에 대한 견해



를 질문하여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6%이며 이들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64.0%였다(매우 부담 32.3%, 다소 부담 31.7%).

〈표 3-2〉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66.1%로, 남자의 경우인 62.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이 1.5%로 가장 낮지만, 학생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8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신중년은 50~54세 65.9%(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67.6%), 55~59세 60.6%(28.0%), 60~64세 80%(8.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20.5%)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31.7%)나 중소도시(34.3%)보다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이 낮지만,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40.8%이며 대도시는 31.1%, 중소도시 31.2%이다.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인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각각 36.4%, 64.4%로, 미취업인 경우의 17.3%와 6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은 17.0%이며 이들 중 84.2%가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하층’의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대상 중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79.6%(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23.7%)이며 중간층 65.1%(34.6%), 중상층 42.5%(44.3%), 상층 25.1%(40.0%)로 나타났다.

〈표 3-2〉 학생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학생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 <sup>1)</sup>					소계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전체	69.4	30.6	32.3	31.7	22.8	7.1	6.1	100.0	100.0	(2,022)
성별( $\chi^2=35.6^{***}$ )										
남자	63.9	36.1	29.6	32.9	25.5	6.0	6.0	100.0	100.0	(1,010)
여자	74.9	25.1	36.2	29.9	18.9	8.7	6.3	100.0	100.0	(1,012)
연령( $\chi^2=638.4^{***}$ )										
50~54세	32.4	67.6	34.1	31.8	23.1	5.5	5.5	100.0	100.0	( 595)
55~59세	72.0	28.0	26.5	34.1	24.1	9.4	5.9	100.0	100.0	( 608)
60~64세	91.3	8.7	35.7	21.4	16.7	11.9	14.3	100.0	100.0	( 485)
65~69세	98.5	1.5	60.0	20.0	0.0	20.0	0.0	100.0	100.0	( 334)
지역( $\chi^2=29.5^{**}$ )										
대도시	68.3	31.7	31.1	30.7	25.8	6.4	6.0	100.0	100.0	( 894)
중소도시	65.7	34.3	31.2	33.8	20.4	7.3	7.3	100.0	100.0	( 758)
농어촌	79.5	20.5	40.8	27.6	19.7	9.2	2.6	100.0	100.0	( 370)
취업 상태 <sup>2)</sup> ( $\chi^2=75.7^{***}$ )										
취업	63.6	36.4	31.8	32.6	23.4	6.2	6.0	100.0	100.0	(1,409)
미취업	82.7	17.3	34.3	27.6	20.0	11.4	6.7	100.0	100.0	( 606)
소득계층( $\chi^2=194.1^{***}$ )										
하층	83.0	17.0	68.4	15.8	8.8	5.3	1.8	100.0	100.0	( 336)
중하층	76.3	23.7	43.5	36.1	14.8	5.6	0.0	100.0	100.0	( 456)
중간층	65.4	34.6	29.9	35.2	24.2	6.0	4.7	100.0	100.0	( 919)
중상층	55.7	44.3	13.3	29.2	31.7	12.5	13.3	100.0	100.0	( 271)
상층	60.0	40.0	18.8	6.3	31.3	6.3	37.5	100.0	100.0	( 40)

주: 1) 학생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세대의 만혼, 늦은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립할 나이의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국립국어원, 2019. 3. 26. 인출 <http://opendict.korean.go.kr/>)'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아직 이론적 근거나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자녀'를 '캥거루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3-3〉은 신중년 세대의 가구에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신중년들이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를 살펴본 내용이다. 신중년 가구에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9.1%이며, 이들 중 41.2%는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부담 19.1%, 다소 부담 22.1%).

〈표 3-3〉을 살펴보면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이 65~69세인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54세(43.5%), 55~59세(39.1%), 60~64세(39.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비율이 47.1%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인 경우의 39.7%와 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매우' 크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1.8%로 취업인 경우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캥거

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층이 53.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 52.5%, 중간층 36.9%, 중상층 26.7%, 상층 12.6% 순이었다.

〈표 3-3〉 캥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캥거루족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 <sup>1)</sup>					소계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전체	60.9	39.1	19.1	22.1	22.0	18.6	18.2	100.0	100.0	(2,022)
성별( $\chi^2=1.3$ )										
남자	61.1	38.9	19.6	22.4	21.9	19.3	16.8	100.0	100.0	(1,010)
여자	60.7	39.3	18.6	21.9	22.1	17.8	19.6	100.0	100.0	(1,012)
연령( $\chi^2=79.6^{***}$ )										
50~54세	61.0	39.0	19.4	24.1	25.4	20.3	10.8	100.0	100.0	( 595)
55~59세	51.3	48.7	15.5	23.6	20.9	21.6	18.2	100.0	100.0	( 608)
60~64세	63.3	36.7	23.0	16.3	22.5	16.3	21.9	100.0	100.0	( 485)
65~69세	74.6	25.4	22.4	23.5	15.3	8.2	30.6	100.0	100.0	( 334)
지역( $\chi^2=29.8^{**}$ )										
대도시	56.9	43.1	18.4	21.3	22.1	19.5	18.7	100.0	100.0	( 894)
중소도시	59.9	40.1	19.1	22.0	21.1	18.8	19.1	100.0	100.0	( 758)
농어촌	72.4	27.6	21.6	25.5	24.5	14.7	13.7	100.0	100.0	( 370)
취업 상태 <sup>2)</sup> ( $\chi^2=17.7^{**}$ )										
취업	59.6	40.4	18.1	23.6	22.7	20.2	15.5	100.0	100.0	(1,409)
미취업	63.7	36.3	21.8	18.2	20.5	14.1	25.5	100.0	100.0	( 606)
소득계층( $\chi^2=69.3^{***}$ )										
하층	65.2	34.8	36.8	17.1	21.4	10.3	14.5	100.0	100.0	( 336)
중하층	59.9	40.1	21.9	30.6	19.1	16.9	11.5	100.0	100.0	( 456)
중간층	59.3	40.7	15.0	21.9	24.6	19.5	19.0	100.0	100.0	( 919)
중상층	62.7	37.3	10.9	15.8	19.8	23.8	29.7	100.0	100.0	( 271)
상층	60.0	40.0	6.3	6.3	12.5	43.8	31.3	100.0	100.0	( 40)

주: 1)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갱거루족’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개념으로 ‘신갱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제시되고 있다. ‘신갱거루족’은 ‘경제적으로는 자립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며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국립국어원, 2019. 3. 26. 인출 <http://opendict.korean.go.kr/>)을 말한다. 신갱거루족이라는 개념도 갱거루족과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는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갱거루족과 신갱거루족의 차이를 ‘자녀의 혼인 여부’에 초점을 두어 적용하였다. 즉 갱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자녀’이며, 신갱거루족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로 정의하였다.

〈표 3-4〉는 신갱거루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 가구 비율과 신갱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신중년가구 중 ‘신갱거루족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4%이며, 이들 중 27.0%는 신갱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부담 18.0%, 다소 부담 9%). 이러한 결과는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와 신중년 부모 간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신중년인 부모는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함께 사는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질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다.

한편 신갱거루족에 대한 신중년의 경제적 지원 부담은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 등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3-4〉 신캐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신캐거루족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 <sup>1)</sup>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95.6	4.4	18.0	9.0	24.7	18.0	30.3	100.0	100.0	(2,022)
성별( $\chi^2=10.9$ )										
남자	96.9	3.1	16.1	6.5	19.4	25.8	32.3	100.0	100.0	(1,010)
여자	94.3	5.7	19.0	10.3	27.6	13.8	29.3	100.0	100.0	(1,012)
연령( $\chi^2=21.6$ )										
50~54세	97.6	2.4	14.3	14.3	28.6	28.6	14.3	100.0	100.0	( 595)
55~59세	95.4	4.6	25.0	0.0	28.6	10.7	35.7	100.0	100.0	( 608)
60~64세	94.0	6.0	17.2	17.2	20.7	13.8	31.0	100.0	100.0	( 485)
65~69세	94.6	5.4	11.1	5.6	22.2	27.8	33.3	100.0	100.0	( 334)
지역( $\chi^2=7.1$ )										
대도시	95.9	4.1	18.9	10.8	24.3	13.5	32.4	100.0	100.0	( 894)
중소도시	95.0	5.0	10.5	10.5	26.3	21.1	31.6	100.0	100.0	( 758)
농어촌	96.2	3.8	35.7	0.0	21.4	21.4	21.4	100.0	100.0	( 370)
취업 상태 <sup>2)</sup> ( $\chi^2=1.5$ )										
취업	95.8	4.2	18.6	8.5	23.7	20.3	28.8	100.0	100.0	(1,409)
미취업	95.0	5.0	16.7	10.0	26.7	13.3	33.3	100.0	100.0	( 606)
소득계층( $\chi^2=19.6$ )										
하층	94.0	6.0	35.0	5.0	20.0	20.0	20.0	100.0	100.0	( 336)
중하층	94.1	5.9	11.1	11.1	25.9	18.5	33.3	100.0	100.0	( 456)
중간층	96.0	4.0	16.2	8.1	24.3	18.9	32.4	100.0	100.0	( 919)
중상층	98.2	1.8	0.0	20.0	40.0	0.0	40.0	100.0	100.0	( 271)
상층	100.0	0.0	-	-	-	-	-	-	100.0	( 40)

주: 1) 신캐거루족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살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7%이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32.8%였다(매우 부담 12.6%, 다소 부담 20.2%).

〈표 3-5〉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36.8%로, 남자의 경우인 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54세의 경우 생존 부모가 있는 비율이 82.9%로 가장 높고, 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5~59세 33.3%(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 63.3%), 60~64세 28.8%(42.9%), 65~69세 29.0%(29.9%)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농어촌(34.0%)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33.1%)나 중소도시(32.2%)보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0%로, 취업인 경우의 32.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40.8%), 중간층(29.7%), 중상층(21.9%), 상층(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생존 부모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생존 부모 <sup>1)</sup>		경제적 부담 수준 <sup>2)</sup>					소계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전체	41.3	58.7	12.6	20.2	25.3	21.6	20.2	100.0	100.0	(2,022)
성별( $\chi^2=17.1^{**}$ )										
남자	40.5	59.5	9.3	19.8	27.6	23.8	19.5	100.0	100.0	(1,010)
여자	42.2	57.8	16.1	20.7	22.9	19.3	21.0	100.0	100.0	(1,012)
연령( $\chi^2=336.4^{***}$ )										
50~54세	17.1	82.9	13.6	21.5	29.4	18.1	17.4	100.0	100.0	( 595)
55~59세	36.7	63.3	11.2	22.1	22.3	23.1	21.3	100.0	100.0	( 608)
60~64세	57.1	42.9	11.5	17.3	22.6	27.9	20.7	100.0	100.0	( 485)
65~69세	70.1	29.9	16.0	13.0	22.0	20.0	29.0	100.0	100.0	( 334)
지역( $\chi^2=15.4^{**}$ )										
대도시	40.9	59.1	12.1	21.0	24.8	22.9	19.1	100.0	100.0	( 894)
중소도시	38.0	62.0	12.8	19.4	25.3	21.1	21.5	100.0	100.0	( 758)
농어촌	49.2	50.8	13.8	20.2	26.6	19.1	20.2	100.0	100.0	( 370)
취업 상태 <sup>3)</sup> ( $\chi^2=32.4^{***}$ )										
취업	38.0	62.0	12.4	19.7	26.2	23.4	18.3	100.0	100.0	(1,409)
미취업	49.0	51.0	13.3	21.7	23.0	16.5	25.6	100.0	100.0	( 606)
소득계층( $\chi^2=126.4^{***}$ )										
하층	54.5	45.5	31.4	18.3	15.7	15.0	19.6	100.0	100.0	( 336)
중하층	44.1	55.9	15.3	25.5	23.9	18.8	16.5	100.0	100.0	( 456)
중간층	38.8	61.2	8.9	20.8	26.7	23.7	19.9	100.0	100.0	( 919)
중상층	29.2	70.8	6.3	15.6	30.2	24.0	24.0	100.0	100.0	( 271)
상층	40.0	60.0	4.2	0.0	29.2	25.0	41.7	100.0	100.0	( 40)

주: 1) 응답자 본인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한 경우 '있음'.

2) 생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3)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4)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전화만남 등 정서적 지원, 식사·몸단장 등 신체적 지원, 장보기·청소 등 도구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32.2%였다(매우 부담 9.7%, 다소 부담 22.5%).

〈표 3-6〉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39.6%로, 남자의 경우인 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50~54세의 경우 부모를 비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5~59세 33.5%, 65~69세 29.0%, 60~64세 27.5%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 부모에 대해 비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9%로, 취업인 경우의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부담을 대체로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이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상층(30.3%), 중간층(28.5%), 상층(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생존 부모 유무 및 비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생존 부모 <sup>1)</sup>		비경제적 부담 수준 <sup>2)</sup>					소계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전체	41.3	58.7	9.7	22.5	27.1	22.3	18.4	100.0	100.0	(2,022)
성별( $\chi^2=31.6^{***}$ )										
남자	40.5	59.5	7.3	17.6	28.6	26.0	20.5	100.0	100.0	(1,010)
여자	42.2	57.8	12.1	27.5	25.5	18.6	16.2	100.0	100.0	(1,012)
연령( $\chi^2=320.5^{***}$ )										
50~54세	17.1	82.9	10.5	23.3	29.0	20.7	16.4	100.0	100.0	( 595)
55~59세	36.7	63.3	9.6	23.9	24.7	22.9	19.0	100.0	100.0	( 608)
60~64세	57.1	42.9	8.7	18.8	26.9	25.5	20.2	100.0	100.0	( 485)
65~69세	70.1	29.9	8.0	21.0	27.0	22.0	22.0	100.0	100.0	( 334)
지역( $\chi^2=17.5$ )										
대도시	40.9	59.1	9.1	24.1	27.5	22.2	17.2	100.0	100.0	( 894)
중소도시	38.0	62.0	10.2	22.8	26.8	21.3	18.9	100.0	100.0	( 758)
농어촌	49.2	50.8	10.1	17.6	26.6	25.5	20.2	100.0	100.0	( 370)
취업 상태 <sup>3)</sup> ( $\chi^2=24.2^{***}$ )										
취업	38.0	62.0	9.2	21.6	27.7	23.1	18.3	100.0	100.0	(1,409)
미취업	49.0	51.0	11.3	24.6	25.2	20.1	18.8	100.0	100.0	( 606)
소득계층( $\chi^2=103.5^{***}$ )										
하층	54.5	45.5	23.5	15.7	24.2	18.3	18.3	100.0	100.0	( 336)
중하층	44.1	55.9	9.8	29.4	24.3	21.2	15.3	100.0	100.0	( 456)
중간층	38.8	61.2	7.5	21.0	30.8	23.1	17.6	100.0	100.0	( 919)
중상층	29.2	70.8	6.3	24.0	22.4	25.5	21.9	100.0	100.0	( 271)
상층	40.0	60.0	0.0	16.7	25.0	16.7	41.7	100.0	100.0	( 40)

주: 1) 응답자 본인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한 경우 '있음'.

2) 생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3)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4)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표 3-7>과 같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다.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 중에서는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22.5%),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 이후 느끼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11.8%), 부모님을 경제적 및 비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7.6%),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6.7%)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현재 생활의 걱정거리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없음(남자 24.3%, 여자 29.3%), 부모 부양(남자 6.7%, 여자 8.4%)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의 경우 소득 부족(남자 26.0%, 여자 23.1%), 자녀 부양(남자 24.3%, 여자 20.8%)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의 경우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없다는 비율이 34.2~36.5%로 50대의 19.2~23.0%보다 높은 반면 자녀 부양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응답은 8.7~15.3%로 50대의 24.5~34.1%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모 부양이 신중년의 현재 생활 걱정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에 대한 걱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중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배우자 포함)가 살아계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sup>1)</sup> 부모 부양이 걱정거리라는 응답은 50~54세 10.4%, 55~59세 9.9%, 60~64세 4.3%, 65~69세 3.0%였다.

취업 상태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 걱정거리가 없다(취업 25.5%,

1) 연령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1명 이상 살아 있는 비율은 50~54세 82.9%, 55~59세 63.3%, 60~64세 42.9%, 65~69세 29.9%임.

미취업 29.9%)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취업 11.1%, 미취업 13.7%), 경제활동 미참여(취업 5.3%, 10.1%)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인 경우 자녀 부양(취업 25.8%, 미취업 15.0%), 부모 부양(취업 8.4%, 미취업 5.4%)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현재 생활에서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생활에서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비율은 상층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상층 38.4%, 중간층 31.6%, 중하층 17.8%, 하층 12.5% 순이었다. 또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 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걱정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 15.0%, 중상층 14.8%, 중간층 13.2%, 중하층 8.8%, 하층 9.5% 등이다.

〈표 3-7〉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없음	소득 부족	자녀 부양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부모 부양	경제활동 미참여	계	(명)
전체	26.8	24.6	22.5	11.8	7.6	6.7	100.0	(2,022)
성별( $\chi^2=11.4^*$ )								
남자	24.3	26.0	24.3	11.8	6.7	6.9	100.0	(1,010)
여자	29.3	23.1	20.8	11.9	8.4	6.5	100.0	(1,012)
연령( $\chi^2=169.7^{***}$ )								
50~54세	19.2	21.3	34.1	9.9	10.4	5.0	100.0	( 595)
55~59세	23.0	22.0	24.5	13.3	9.9	7.2	100.0	( 608)
60~64세	34.2	24.5	15.3	13.8	4.3	7.8	100.0	( 485)
65~69세	36.5	35.0	8.7	9.6	3.0	7.2	100.0	( 334)
지역( $\chi^2=4.4$ )								
대도시	26.4	24.5	22.7	12.5	7.7	6.2	100.0	( 894)
중소도시	26.4	24.1	22.3	11.5	7.9	7.8	100.0	( 758)
농어촌	28.6	25.7	22.4	10.8	6.5	5.9	100.0	( 370)

구분	없음	소득 부족	자녀 부양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부모 부양	경제활동 미참여	계	(명)
취업 상태 <sup>1)</sup> ( $\chi^2=47.3^{***}$ )								
취업	25.5	24.1	25.8	11.1	8.4	5.3	100.0	( 1,409)
미취업	29.9	25.9	15.0	13.7	5.4	10.1	100.0	( 606)
소득계층( $\chi^2=265.9^{***}$ )								
하층	12.5	44.6	17.6	9.5	4.8	11.0	100.0	( 336)
중하층	17.8	36.6	21.3	8.8	7.5	8.1	100.0	( 456)
중간층	31.6	17.5	24.6	13.2	7.7	5.4	100.0	( 919)
중상층	38.4	6.6	25.1	14.8	11.1	4.1	100.0	( 271)
상층	62.5	2.5	12.5	15.0	5.0	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걸림돌이 없다는 의견은 24.0%였다. 그 외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내용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20.8%), 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6.6%),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낌(6.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2.3%) 등이다.

〈표 3-8〉을 살펴보면 연령,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응답과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부양(자녀, 부모, 자녀와 부모 합산)이 노후 준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의견이 50~54세 17.3%, 55~59세 22.4%, 60~64세 29.3%,

65~69세 31.1%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은 50~54세 4.4%, 55~59세 5.9%, 60~64세 7.4%, 65~69세 9.0% 순이었다. 가족 부양이 노후 준비의 걸림돌이라는 응답은 50~54세 42.7%, 55~59세 30.4%, 60~64세 22.2%, 65~69세 15.9%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가족 부양(자녀 22.3%, 부모 1.9%, 자녀와 부모 7.5%)이 노후 준비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31.7%로 미취업인 경우의 25.4%(자녀 17.5%, 부모 3.3%, 자녀와 부모 4.6%)보다 많았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이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상층 46.9%, 중간층 26.1%, 중하층 13.2%, 하층 8.9% 순이었다.

〈표 3-8〉 경제적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없음	소득 불충분	자녀 부양	부모 및 자녀 부양	필요성 못 느낌	부모 부양	계	(명)
전체	24.0	40.0	20.8	6.6	6.3	2.3	100.0	(2,022)
성별( $\chi^2=6.8$ )								
남자	22.6	40.2	21.7	6.4	7.2	1.9	100.0	(1,010)
여자	25.4	39.8	19.9	6.7	5.4	2.8	100.0	(1,012)
연령( $\chi^2=105.7^{***}$ )								
50~54세	17.3	35.6	28.9	10.4	4.4	3.4	100.0	( 595)
55~59세	22.4	41.3	20.9	7.2	5.9	2.3	100.0	( 608)
60~64세	29.3	41.0	16.3	4.3	7.4	1.6	100.0	( 485)
65~69세	31.1	44.0	12.6	1.8	9.0	1.5	100.0	( 334)
지역( $\chi^2=6.1$ )								
대도시	23.5	39.5	21.9	6.2	6.5	2.5	100.0	( 894)
중소도시	24.3	40.4	20.6	7.3	5.3	2.2	100.0	( 758)
농어촌	24.6	40.5	18.4	6.2	8.1	2.2	100.0	( 370)

구분	없음	소득 불충분	자녀 부양	부모 및 자녀 부양	필요성 못 느낌	부모 부양	계	(명)
취업 상태 <sup>1)</sup> ( $\chi^2=16.2^{**}$ )								
취업	23.1	39.3	22.3	7.5	6.0	1.9	100.0	(1,409)
미취업	26.1	41.4	17.5	4.6	7.1	3.3	100.0	(606)
소득계층( $\chi^2=297.8^{***}$ )								
하층	8.9	61.0	16.1	5.4	6.0	2.7	100.0	(336)
중하층	13.2	54.4	21.5	4.8	3.7	2.4	100.0	(456)
중간층	26.1	33.3	23.3	7.7	7.2	2.4	100.0	(919)
중상층	46.9	17.7	18.8	8.1	7.0	1.5	100.0	(271)
상층	70.0	5.0	7.5	0.0	15.0	2.5	100.0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전혀 동의 안 함 33.1%, 별로 동의 안 함 33.9%). <표 3-9>를 살펴보면 지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자녀들이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1.3%로 중소도시 65.3%, 농어촌 6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69.3%가 자녀들이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인 경우 61.4%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노후에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상층이 8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상층 79.7%, 중간층 69.5%, 중하층 61.8%, 하층 55.7% 순이었다.

6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3-9〉 부모 노후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함	동의 별로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33.1	33.9	20.1	9.9	2.9	100.0	(2,022)
성별( $\chi^2=3.3$ )							
남자	34.9	33.5	19.6	9.2	2.9	100.0	(1,010)
여자	31.4	34.3	20.7	10.7	3.0	100.0	(1,012)
연령( $\chi^2=20.0$ )							
50~54세	33.8	33.3	20.7	9.7	2.5	100.0	( 595)
55~59세	34.0	36.0	18.9	8.4	2.6	100.0	( 608)
60~64세	35.1	33.2	20.2	9.3	2.3	100.0	( 485)
65~69세	27.5	32.0	21.3	14.1	5.1	100.0	( 334)
지역( $\chi^2=24.3^{**}$ )							
대도시	34.7	36.6	18.8	8.4	1.6	100.0	( 894)
중소도시	32.7	32.6	20.6	10.7	3.4	100.0	( 758)
농어촌	30.3	30.0	22.4	12.2	5.1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15.2^{**}$ )							
취업	34.9	34.4	19.2	9.1	2.4	100.0	(1,409)
미취업	28.9	32.5	22.6	11.9	4.1	100.0	( 606)
소득계층( $\chi^2=90.5^{***}$ )							
하층	26.8	28.9	22.6	14.6	7.1	100.0	( 336)
중하층	29.6	32.2	22.1	14.0	2.0	100.0	( 456)
중간층	32.9	36.6	20.1	8.1	2.4	100.0	( 919)
중상층	44.3	35.4	14.8	4.1	1.5	100.0	( 271)
상층	57.5	22.5	12.5	7.5	0.0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제3절 가족문화 및 가치관

신중년의 가족 형성과 가족 해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인생 후반기의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가족 내 역할을 보다 확장하여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신중년에 대한 명칭과 연령 차별(노인 혐오), 노년기 생산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표 3-10>과 같이 신중년에게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45.8%, 다소 그런 편 14.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에 따라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68.0%로, 여자의 52.6%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0~54세가 44.2%로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55~59세 57.2%, 60~64세 69.7%, 65~69세 80.6% 순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농어촌 66.8%, 중소도시 59.1%, 대도시 58.5%),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하층 69.1%, 중하층 59.7%, 중간층 58.4%, 중상층 57.6%, 상층 52.5%).

〈표 3-10〉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7.3	14.8	17.7	14.4	45.8	100.0	(2,022)
성별( $\chi^2=79.8^{***}$ )							
남자	5.9	9.4	16.7	13.5	54.5	100.0	(1,010)
여자	8.6	20.3	18.6	15.3	37.3	100.0	(1,012)
연령( $\chi^2=185.2^{***}$ )							
50~54세	13.1	20.2	22.5	12.9	31.3	100.0	( 595)
55~59세	5.4	17.6	19.7	17.4	39.8	100.0	( 608)
60~64세	5.8	9.9	14.6	12.8	56.9	100.0	( 485)
65~69세	2.4	7.5	9.6	13.8	66.8	100.0	( 334)
지역( $\chi^2=14.7$ )							
대도시	7.5	14.9	19.1	14.5	44.0	100.0	( 894)
중소도시	8.4	15.8	16.6	14.5	44.6	100.0	( 758)
농어촌	4.3	12.7	16.2	13.8	53.0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2.1$ )							
취업	7.3	15.0	18.4	14.3	45.0	100.0	(1,409)
미취업	7.3	14.4	16.2	14.4	47.9	100.0	( 606)
소득계층( $\chi^2=18.7$ )							
하층	7.1	10.1	13.7	15.5	53.6	100.0	( 336)
중하층	7.2	16.0	17.1	14.7	45.0	100.0	( 456)
중간층	7.2	15.5	18.9	13.9	44.5	100.0	( 919)
중상층	7.4	17.0	18.1	14.8	42.8	100.0	( 271)
상층	10.0	12.5	25.0	10.0	4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세대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52.8%, 다소 그런 편 14.6%).

〈표 3-11〉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자녀 세대의 출산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자녀 세대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8%로, 여자의 62.1%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5~69세는 81.8%가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다음으로 60~64세 75.9%, 55~59세 67.1%, 50~54세 52.8%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대도시 65.5%, 중소도시 67.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자녀 세대의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6.6	9.4	16.6	14.6	52.8	100.0	(2,022)
성별( $\chi^2=53.1***$ )							
남자	5.3	6.8	15.0	12.2	60.6	100.0	(1,010)
여자	7.9	12.0	18.1	17.0	45.1	100.0	(1,012)
연령( $\chi^2=145.5***$ )							
50~54세	11.8	14.3	21.2	13.8	39.0	100.0	( 595)
55~59세	6.4	8.6	17.9	17.6	49.5	100.0	( 608)
60~64세	4.1	7.4	12.6	15.3	60.6	100.0	( 485)
65~69세	1.5	5.1	11.7	9.6	72.2	100.0	( 334)
지역( $\chi^2=23.8**$ )							
대도시	7.0	8.8	18.7	14.9	50.6	100.0	( 894)
중소도시	8.0	10.2	14.0	15.6	52.2	100.0	( 758)
농어촌	2.7	9.2	16.8	11.9	59.5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3.4$ )							
취업	6.9	9.0	16.3	15.3	52.5	100.0	(1,409)
미취업	5.9	10.4	17.2	12.9	53.6	100.0	( 606)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소득계층( $\chi^2=12.8$ )							
하층	6.8	7.4	13.7	13.7	58.3	100.0	( 336)
중하층	7.0	9.9	17.3	15.8	50.0	100.0	( 456)
중간층	6.3	9.4	17.8	15.0	51.5	100.0	( 919)
중상층	7.0	11.1	15.1	13.3	53.5	100.0	( 271)
상층	5.0	10.0	12.5	7.5	65.0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49.7%(‘절대 하면 안 됨’과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합산)로 긍정적인 응답 41.2%(‘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과 ‘전적으로 할 수 있음’ 합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가지 선택 항목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황혼이혼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39.9%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 27.3%, 절대 하면 안 된다 22.4%, 보통이다 9.1%, 전적으로 할 수 있다 1.3%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12〉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황혼이혼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남자의 경우 황혼이혼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8.4%로, 여자의 41.0%보다 높았다. 개별 선택 항목별 응답에서는 남자의 경우 절대 하면 안 된다가 30.1%로 여자의 14.6%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48.7%로 남자의 31.1%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황혼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5~69세는 황혼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60~64세 54.6%, 55~59세 47.4%, 50~54세 39.6% 순이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의 45.0%는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43.2%, 중상층 40.2%, 중간층 39.6%, 하층 3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절대 하면 안 됨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보통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	전적으로 할 수 있음	계	(명)
전체	22.4	27.3	9.1	39.9	1.3	100.0	(2,022)
성별( $\chi^2=95.0^{***}$ )							
남자	30.1	28.3	9.4	31.1	1.1	100.0	(1,010)
여자	14.6	26.4	8.8	48.7	1.5	100.0	(1,012)
연령( $\chi^2=76.7^{***}$ )							
50~54세	15.6	24.0	10.3	48.1	2.0	100.0	( 595)
55~59세	19.1	28.3	9.2	42.6	0.8	100.0	( 608)
60~64세	26.8	27.8	9.3	35.1	1.0	100.0	( 485)
65~69세	33.8	30.8	6.6	27.5	1.2	100.0	( 334)
지역( $\chi^2=8.3$ )							
대도시	20.5	27.9	9.2	41.1	1.5	100.0	( 894)
중소도시	22.3	26.6	9.6	40.4	1.1	100.0	( 758)
농어촌	27.0	27.6	7.8	36.2	1.4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1.7$ )							
취업	22.8	27.6	8.9	39.5	1.1	100.0	(1,409)
미취업	21.6	26.4	9.6	40.8	1.7	100.0	( 606)
소득계층( $\chi^2=36.7^{**}$ )							
하층	30.4	22.0	10.4	35.4	1.8	100.0	( 336)
중하층	20.4	25.9	9.6	43.2	0.9	100.0	( 456)
중간층	20.9	29.2	9.6	39.6	0.8	100.0	( 919)
중상층	20.7	31.0	5.2	40.2	3.0	100.0	( 271)
상층	22.5	22.5	7.5	45.0	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우리 사회에는 중년 및 노부부 사이에서 황혼이혼 대신 법률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하는, 이른바 ‘졸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중년은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sup>2)</sup> 그다음으로 졸혼은 가능한 한 하면 안 된다 23.0%, 절대 하면 안 된다 22.8%, 보통이다 12.0%, 전적으로 할 수 있다 1.9% 순이었다. 따라서 신중년의 졸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45.8%로 확인되었다(‘가능한 한 하면 안 된다’와 ‘절대 하면 안 된다’ 합산).

〈표 3-13〉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에 따라 졸혼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경우 졸혼에 부정적인 응답이 53.9%로, 여자의 37.8%보다 높았다. 개별 선택 항목별 응답에서는 남자의 경우 절대 하면 안 된다가 29.5%로 여자의 16.1%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48.2%로 남자의 32.3%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졸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5~69세는 졸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60~64세 50.8%, 55~59세 45.4%, 50~54세 36.3%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졸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43.3%로 중소도시(47.1%)와 농어촌(49.5%)보다 낮았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졸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졸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인 경우 졸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7.2%로 미취업인 경우 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이는 황혼이혼에 대해 39.9%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과 유사한 결과임.

〈표 3-13〉 즐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절대 하면 안 됨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보통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	전적으로 할 수 있음	계	(명)
전체	22.8	23.0	12.0	40.3	1.9	100.0	(2,022)
성별( $\chi^2=75.1^{***}$ )							
남자	29.5	24.4	12.4	32.3	1.5	100.0	(1,010)
여자	16.1	21.7	11.7	48.2	2.3	100.0	(1,012)
연령( $\chi^2=54.7^{***}$ )							
50~54세	17.3	19.0	14.6	46.1	3.0	100.0	( 595)
55~59세	20.7	24.7	12.2	41.1	1.3	100.0	( 608)
60~64세	25.4	25.4	10.9	37.1	1.2	100.0	( 485)
65~69세	32.6	24.0	8.7	32.9	1.8	100.0	( 334)
지역( $\chi^2=16.5^*$ )							
대도시	19.7	23.6	11.6	42.6	2.5	100.0	( 894)
중소도시	23.7	23.4	12.8	38.9	1.2	100.0	( 758)
농어촌	28.4	21.1	11.4	37.3	1.9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10.9^*$ )							
취업	23.8	23.4	12.9	38.0	1.8	100.0	(1,409)
미취업	20.5	22.4	9.9	45.2	2.0	100.0	( 606)
소득계층( $\chi^2=25.8$ )							
하층	27.4	21.7	11.3	38.4	1.2	100.0	( 336)
중하층	20.4	22.1	12.5	43.4	1.5	100.0	( 456)
중간층	23.4	22.9	13.1	39.2	1.5	100.0	( 919)
중상층	19.9	27.3	8.1	40.6	4.1	100.0	( 271)
상층	17.5	20.0	15.0	42.5	5.0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0~60대를 신중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신중년의 60.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22.1%, 대체로 동의 38.6%). 우리 사회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 은퇴 시기에 있던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은 이러한 호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3-14〉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신중년에 대한 동의 수준이 62.1%로, 여자인 경우 59.3%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중년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이 63.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농어촌 60.5%, 대도시 5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50~60대의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동의 별로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5.3	11.0	23.0	38.6	22.1	100.0	(2,022)
성별( $\chi^2=35.9^{***}$ )							
남자	6.8	12.4	18.7	37.2	24.9	100.0	(1,010)
여자	3.9	9.6	27.3	39.9	19.4	100.0	(1,012)
연령( $\chi^2=10.5$ )							
50~54세	5.7	11.6	19.5	40.2	23.0	100.0	( 595)
55~59세	5.3	9.7	22.7	39.6	22.7	100.0	( 608)
60~64세	5.2	12.2	24.9	36.9	20.8	100.0	( 485)
65~69세	5.1	10.5	26.9	36.2	21.3	100.0	( 334)
지역( $\chi^2=19.8^*$ )							
대도시	6.4	9.6	25.3	37.1	21.6	100.0	( 894)
중소도시	4.7	12.4	19.8	38.3	24.8	100.0	( 758)
농어촌	4.1	11.4	24.1	42.7	17.8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13.6^{**}$ )							
취업	5.5	11.6	21.0	38.5	23.4	100.0	(1,409)
미취업	5.0	9.6	27.7	38.6	19.1	100.0	( 606)



구분	전혀 안함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소득계층( $\chi^2=29.8^*$ )							
하층	6.5	11.0	27.7	38.1	16.7	100.0	( 336)
중하층	6.8	12.7	21.9	39.5	19.1	100.0	( 456)
중간층	4.4	10.2	23.6	38.8	23.0	100.0	( 919)
중상층	4.8	10.7	17.3	37.6	29.5	100.0	( 271)
상층	5.0	10.0	20.0	32.5	3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61.9%가 신중년이란 호칭에 대해 동의하여 미취업인 경우 57.7%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신중년이란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계층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7.1%로 가장 높고, 그다음 상층 65.0%, 중간층 61.8%, 중하층 58.6%, 하층 54.8% 순이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연령 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8.7%, 다소 그런 편 37.4%).

〈표 3-15〉를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에 따라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 혐오가 있는지에 대해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높고,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은 중상층이 44.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상층 40.0%, 중간층 36.7%, 중하층 36.6%, 하층 34.8% 순이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하층이 16.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

7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층(7.5%), 중상층(7.4%), 중간층(7.3%), 상층(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9.6	17.7	26.5	37.4	8.7	100.0	(2,022)
성별( $\chi^2=7.8$ )							
남자	11.1	17.8	24.9	36.8	9.4	100.0	(1,010)
여자	8.2	17.6	28.2	38.0	8.0	100.0	(1,012)
연령( $\chi^2=8.4$ )							
50~54세	9.6	18.7	26.6	36.5	8.7	100.0	( 595)
55~59세	10.2	18.6	24.7	39.5	7.1	100.0	( 608)
60~64세	8.5	16.7	28.0	36.5	10.3	100.0	( 485)
65~69세	10.5	15.9	27.5	36.8	9.3	100.0	( 334)
지역( $\chi^2=4.9$ )							
대도시	9.6	16.8	26.7	38.8	8.1	100.0	( 894)
중소도시	8.8	19.0	25.9	36.9	9.4	100.0	( 758)
농어촌	11.4	17.3	27.3	35.1	8.9	100.0	( 370)
취업 상태 <sup>1)</sup> ( $\chi^2=6.9$ )							
취업	10.5	18.1	25.6	37.4	8.4	100.0	(1,409)
미취업	7.4	16.7	28.9	37.6	9.4	100.0	( 606)
소득계층( $\chi^2=43.0***$ )							
하층	9.8	12.2	27.1	34.8	16.1	100.0	( 336)
중하층	10.7	19.1	26.1	36.6	7.5	100.0	( 456)
중간층	9.4	18.8	27.9	36.7	7.3	100.0	( 919)
중상층	7.7	18.5	22.1	44.3	7.4	100.0	( 271)
상층	15.0	17.5	25.0	40.0	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05$ , \*\* $p<.01$ , \*\*\*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0~60대(신중년)는 30~40대(청장년)와 비교하여 '일의 생산성이 낮다'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3%, '보통이다' 20.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1%, '매우 동의한다' 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참여한 신중년의 42.8%가 청장년에 비해 일의 생산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합산).

〈표 3-16〉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이 여자인 경우 신중년은 청장년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45.9%로, 남자의 39.8%보다 높았다.

〈표 3-16〉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12.1	24.3	20.8	34.6	8.2	100.0	(2,022)
성별( $\chi^2=11.5^*$ )							
남자	13.9	25.7	20.6	32.4	7.4	100.0	(1,010)
여자	10.3	22.9	20.9	36.9	9.0	100.0	(1,012)
연령( $\chi^2=51.5^{***}$ )							
50~54세	13.9	29.6	23.0	28.7	4.7	100.0	( 595)
55~59세	13.7	24.7	19.6	34.2	7.9	100.0	( 608)
60~64세	9.7	21.9	19.2	38.8	10.5	100.0	( 485)
65~69세	9.3	18.0	21.3	39.8	11.7	100.0	( 334)
지역( $\chi^2=9.2$ )							
대도시	11.7	24.9	20.8	35.9	6.6	100.0	( 894)
중소도시	12.5	24.9	21.0	32.7	8.8	100.0	( 758)
농어촌	11.9	21.6	20.3	35.4	10.8	100.0	( 370)

취업 상태<sup>1)</sup>( $\chi^2=25.8^{***}$ )

구분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취업	13.4	26.0	21.0	32.6	7.0	100.0	(1,409)
미취업	8.9	20.6	20.3	39.1	11.1	100.0	(606)
소득계층( $\chi^2=48.0^{***}$ )							
하층	10.4	18.2	21.1	35.4	14.9	100.0	(336)
중하층	12.3	27.0	17.5	34.2	9.0	100.0	(456)
중간층	11.5	23.9	22.2	36.0	6.3	100.0	(919)
중상층	14.4	29.2	19.6	31.7	5.2	100.0	(271)
상층	20.0	22.5	30.0	20.0	7.5	100.0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청장년보다 낮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동의 수준이 5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60~64세 49.3%, 55~59세 42.1%, 50~54세 33.4%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청장년보다 낮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50.2%로, 취업인 경우 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낮다고 느낄수록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청장년보다 낮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층이 50.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 43.2%, 중간층 42.3%, 중상층 36.9%, 상층 27.5% 순으로 나타났다.

# 제 4 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제언



##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 정책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 성, 혼인 상태 및 주관적 소득계층 등 응답자들의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서의 청년지원과 노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의하는 정도가 자신의 연령대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노인지원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동의 정도가 노인 및 중년 연령대의 동의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연령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0대는 26.5%만이 동의한 반면 50대는 50.2%, 60대 이상은 67.2%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은 출산·양육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85.0%)이 혼인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15.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가족 양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편(17.5%), 기업(15.7%), 지역사회(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80.0%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 시민들의 전체적인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아동이 49.1%, 청년 26.6%, 노인은 40.8%에 그쳤다. 저출산이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했다는 의견이 각각 23.8%와 44.6%에 그쳤다. 한편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완전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은 9.0%,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75.8%로 나타났다.

##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제3장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샌드위치세대로서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자녀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등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인생 후반기의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중년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 연령 차별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중년(만 50~69세)의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득 부족(24.6%)과 자녀 부양(22.5%), 자녀의 독립 및 은퇴 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11.8%), 부모 부양(7.6%), 경제활동 미참여(6.7%)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신중년의 현재 걱정거리는 샌드위치세대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 부양이 자신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중년의 29.7%는 가족 부양으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자녀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은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중년의 절반 이상인 64.4%는 학생자녀(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30.6%)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있었다. 또한 썬더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은 39.1%로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30.6%보다 더 높았으며, 썬더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41.2%는 이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에도 함께 사는 신썬더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은 4.4%이며 이들 중 27.0%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신중년은 32.0%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32.8%) 및 비경제적(32.2%) 지원에 부담을 느끼면서, 본인의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데 12.8%만 동의(동의 안 함 67.0%)하여 샌드위치세대로서의 가족 부양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중년은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에 대해 각각 60.2%와 67.4%가 동의하였으며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해 각각 49.7%와 45.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긍정적 응답 41.2%, 42.2%).

50~60대를 신중년으로 부르는 것에 60.7%가 동의하였는데, 우리 사회가 점차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과거 은퇴 시기에 있던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은 이러한 호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신중년의 46.1%는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신중년의 42.8%는 청장년에 비해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제언

이번 국민인식조사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정책 대응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태도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앞으로의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50~60대 ‘신중년’ 세대의 가족과 부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시민 태도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인구변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과 정책 대응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과 이해는 특성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청년 또는 노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다른 세대에 대한 존중(예를 들면 노인세대의 청년정책 동의 정도 또는 청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성 역할 문제에서도 성별 갈등의 양상보다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기존 저출산·노인 정책의 체감에 있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지방인구 위기 문제와 주택 부동산 문제 등의 영역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었다.

이 조사 분석 결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대응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견해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꼭 갈등의 양상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 문제의 양상과 그에 대한 정책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정치 영역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중년은 우리 경제가 가장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복지가 선진국 수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신중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의 변화를 느끼는 세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에도 경제적 및 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신중년은 자녀 부양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겪으면서 본인의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에 있는 신중년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크게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신중년이 노동시장에서 희망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신중년의 사회적 재평가(긍정적인 인식)와 더불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수요 측면에서 신중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노인 혐오 수준에 이르는 연령 차별이 사라지고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조사표

ID				
----	--	--	--	--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000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청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선정 질문

선문1.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도)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1-1. **서울에서 ①~⑩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시/군)

- ① 시 지역 ② 군 지역

선문2. 성별 (연결원 : 묻지 말고 기록)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3.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세 **【만 18세 이하 조사 종료】**

1. 18세 이하 ⇒ 편집중단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 🔍 정책 인식

1.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 안 함  
 ② 별로 동의 안 함  
 ③ 대체로 동의  
 ④ 전적으로 동의

4.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뒀다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 안 함
- ② 별로 동의 안 함
- ③ 대체로 동의
- ④ 전적으로 동의

5. 저출산·현상 대응을 위해 어떠한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지원 정책
- ②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6.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편
- ② 아내
- ③ 기업
- ④ 지역사회
- ⑤ 정부

7.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 ② 조금 부적절
- ③ 조금 적절
- ④ 매우 적절

8.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조금 그렇지 않다
- ③ 조금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9.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행하다
- ② 조금 불행하다
- ③ 조금 행복하다
- ④ 매우 행복하다

10.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행하다
- ② 조금 불행하다
- ③ 조금 행복하다
- ④ 매우 행복하다

11.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행하다
- ② 조금 불행하다
- ③ 조금 행복하다
- ④ 매우 행복하다

12.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하락해야 한다
- ② 소폭 하락해야 한다
- ③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소폭 상승해야 한다
- ⑤ 대폭 상승해야 한다

13.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감소해야 한다
- ② 조금 감소해야 한다
- ③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조금 증가해야 한다
- ⑤ 많이 증가해야 한다

14.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 가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됐다
- ② 별로 도움이 안 됐다
- ③ 조금 도움이 됐다
- ④ 매우 도움이 됐다

15.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됐다
- ② 별로 도움이 안 됐다
- ③ 조금 도움이 됐다
- ④ 매우 도움이 됐다

16.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충분
- ② 조금 불충분
- ③ 조금 충분
- ④ 매우 충분


17.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충분
- ② 조금 불충분
- ③ 조금 충분
- ④ 매우 충분

18.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해결하지 못 할 것
- ② 일부 해결 할 수 있을 것
- ③ 완전 해결 할 것



 일반적 특성

---

배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또는 사별

배문2.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배문3.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월세
- ⑤ 기타 (무상거주 등)


배문4.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층
- ② 중하층
- ③ 중간층
- ④ 중상층
- ⑤ 상층

## 부록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신중년(5060세대)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신중년(5060세대)



---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 편집원 000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kook **Research**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신중년(5060세대)

## 응답자 선정

선문1. 성별 (면접원 : 묻지 말고 기록)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생(만 \_\_\_\_\_세) (만 49세 이하, 만 70세 이상 조사 종료)

1. 49세 이하 ⇒ **면접중단**  
 2. 50~54세  
 3. 55~59세  
 4. 60~64세  
 5. 65~69세  
 6. 70세 이상 ⇒ **면접중단**

선문3.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도)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선문3-1. (선문3에서 ⑥~⑯ 응답자만)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시/군)

- ① 시 지역                      ② 군 지역





문7.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 귀하는 본인의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동의한다
- ⑤ 매우 동의한다

※ 가족문화

문8. (자녀 결혼) 귀하는 자녀세대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문9. (손자녀 출산) 귀하는 자녀세대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문10. (황혼이혼) 귀하께서는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하면 안 된다
- ②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 ⑤ 전적으로 할 수 있다

문11. (중혼) 귀하께서는 중년 및 노부부들 사이에서 황혼이혼 대신, 법률적으로 결혼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하는 '중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하면 안 된다
- ②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 ⑤ 전적으로 할 수 있다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신중년(5080세대)

## ※ 가차관

문12. (신중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50~60대로 보고 '신중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귀하는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동의한다
- ⑤ 매우 동의한다

문13. (연령 차별)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 혐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문14. (생산성) 귀하는 50~60대 신중년이 30~40대 청장년과 비교하여 일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동의한다
- ⑤ 매우 동의한다

 일반적 특성

배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또는 사별

배문2.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2년제, 3년제, 4년제)
- ⑤ 대학원 졸업 이상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신중년(5060세대)

배문3. 귀하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1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일할 생각이 있다
- ③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다

배문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한 편이다

배문5.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족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층
- ② 중하층
- ③ 중간층
- ④ 중상층
- ⑤ 상층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